



고대 양국 교류와 인연이 깊은 영암군과 히라카타시

히라카타시(枚方市)는 교토와 오사카 사이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요도가와(淀川) 강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신록이 울창한 이코마(生駒) 산맥이 있다. 동서로 12km, 남북으로 8.7km이며, 면적은 65.12 km²다. '히라카타'라는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지만, 나라(奈良, 8세기) 시대에 완성된 '일본서기(日本書紀)'에 '히라카타'라는 지명이 들어간 단가를 볼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았으며, 헤이안(平安) 시대에는 현재의 히라카타를 포함해서 가타노가하라(交野ヶ原) 지역이 귀족의 수렵지로 알려져 있는데, 긴야(禁野)라는 지명은 지금도 남아있다.

또, 에도(江戸) 시대에는 오사카와 교토를 잇는 도로인 교

카이도(京街道)의 역참 마을로 번창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근교 농촌에서 주택지로 서서히 변모했으며, 1947년 8월 1일, 오사카부의 12번째 시인 히라카타시로 탄생했다. 대규모 주택단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해, 당시 4만 명이던 히라카타의 인구는 현재 40만 명을 넘어서, 인구 규모로는 오사카부 내에서 4번째 도시가 되었다. 2014년 중핵시(中核市)가 되었으며, 2017년에 시 승격 70주년을 맞았다.

전라남도 영암군과 우호도시 제휴

영암군은 전라남도 서남부에 위치하며, 마음이 머무는 영봉 '월출산'이 이름답고, 고대 백제의 학자인 왕인 박사의 탄생지이기도 하다. 일본 최고(最古)의 역사서인 '고사기



재정비 전의 백제사터

(古事記)에 따르면 왕인 박사는 오진 천황(応神天皇)의 초청으로 백제국에서 도래하여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헌상하고, 왕자에게 학문을 가르쳤다고 한다.

한편, 히라카타시에는 일본 유학의 시조인 왕인 박사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오사카부 사적 ‘전왕인묘(伝王仁墓)’가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유지를 모아 결성한 ‘왕인총 환경을 지키는 모임’은,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사적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모역 청소는 물론 참배객과 단체 관광객에게 사적을 안내하고 무궁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또 영암군에서 개최되는 ‘영암 왕인 문화제’에 참가하는 등 20년 넘게 영암군과 시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 의회 관계자의 상호 방문 등 행정 교류 또한 활발해 졌다.

히라카타시에서는 매년 11월 3일, 왕인묘에서 오사카 일한 친선협회가 왕인 박사를 추모하고 공적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박사 왕인 축제’가 열리고 있다. 영암군에서 군수를 비

롯한 행정 관계자와 왕인 박사를 기리는 시민 단체 등에서 다수가 묘소를 방문하여 왕인 박사의 위업을 칭송하며 히라카타시 및 히라카타 시민과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다.

2004년에는 왕인묘 근처에 있는 히라카타시립 스가와라 히가시 소학교와 영암군 구림초등학교가 우호교류 학교가 되어, 두 학교 사이에 벽보 신문 교류 등의 학교 간 교류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왕인묘를 통한 시민 교류의 축적으로 영암군과 히라카타시는 2008년 3월, 히라카타시의 시 승격 60주년을 계기로 우호도시 제휴를 맺었다.

일본의 특별사적 백제사터

히라카타시에는 영암군과의 우호도시 제휴의 계기가 된 왕인묘 외에도 한국과 깊은 관계를 알 수 있는 사적지가 있다. 그것은 나라시대 후반, 한반도에 있던 백제 왕족의 후손인 백제왕씨(百濟王氏, 구다라노코니키시 씨, 의자왕의 직계손 선광(善光)을 선조로 하는 씨족)가 세운 유적, 즉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시립 히라카타슈쿠 카기야자료관

‘국가지정 특별사적 백제사터(百濟寺跡)’다.

7세기,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멸망한 백제 왕족의 후손인 백제왕씨는 나라 시대 후반부터 헤이안 시대에 걸쳐 상류 귀족으로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8세기 중반, 백제왕 경복(敬福, 의자왕의 아들 선광의 증손)이 무쓰노쿠니(陸奥国, 일본 동북지방)에서 개낸 황금 900냥을 도다이지(東大寺)의 대불 건립에 헌상한 공로로 이례적으로 승진했으며, 일족의 거점을 나니와(難波)에서 히라카타로 옮겼을 때 건립한 백제왕씨의 흔적이 백제사터라고 한다.

백제사터가 통일신라의 불국사나 감은사지와 비슷한 쌍탑식 가람 배치였다는 사실은 사적에서 엿볼 수 있다. 또 주요 건물과 탑을 받치는 기단이 양호하게 남아있고, 백제왕

씨의 역사적 배경과도 맞물려, 고대 일본과 한반도의 긴밀한 유대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적이라 할 수 있다. 1941년에 일본의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1952년에는 특별사적이 되었다.

그러나, 오사카부에서는 오사카 성터와 더불어 특별사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송과 잡목이 우거지고 출입하는 사람도 없어, 조릿대 사이로나 초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황폐했다.

1965년부터 1966년까지 오사카부 교육위원회가 발굴 조사를 실시해, 주요 건물과 탑을 받치는 기단을 복원하고 녹지를 형성하는 등 경관을 정비함으로써 일본 최초의 사적 공원으로 탄생했다.

이로부터 40년 이상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파손과 변형, 표층토의 유출 등이 두드러지자, 다시 발굴 조사를 실시해, 히라카타시의 재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현재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맺음말

2018년 3월, 영암군과의 우호도시 제휴 10주년을 맞는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시민 교류, 행정 교류가 앞으로도 지속되어 두 지역의 흔들림 없는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 또 양 시와 군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시민 개개인의 국제 이해를 돕고, 역사적으로도 인연이 깊은 이웃 나라 한국에 대해서 알고, 배우며, 양국의 우의를 다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집필: 히라카타시, 협력: CLAIR, Seoul)



영암군 구림초등학교에서 히라카타시립 스가와라히가시 소학교로 보낸 벽보 신문